KIA, 5강행 청신호 켰다

NC에 2승1패 추격 따돌리고
삼성 원정 4-3 귀중한 승리
남은 8경기 4승4패 반 타작 해도
NC는 9승 이상 만들어야 가능

'운명의 3연전' 승자가 된 KIA 타이거즈가 삼성전 설욕에도 성공하면서 5위 싸움의 유리한 고지에 섰다.

KIA가 25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의 시즌 16차전에서 4-3 승리를 거뒀다.

앞서 0.5경기 차까지 추격해왔던 6위 NC 다이노스와의 원정 3연전에서 2승 1패를 기록하면서 한숨을 돌린 KIA는 지난 17·18일 2패를 안겨줬던 삼성을 상대로 귀한 승리를 추가했다.

이날 승리로 KIA는 5강행 청신호를 켰다.

8경기를 남겨둔 KIA의 성적은 65승 1무 70패, 승률 0.481. 11경기가 남은 NC는 이날 KT 위즈에 1-9로 지면서 60승 3무 70패, 승률 0.462가 됐다.

남은 경기에서 NC가 11연승을 달린다고 해도 KIA는 '자력 5위' 경우의 수(8승)를 남겨두게 된다.

반대로 KIA가 남은 8경기에서 전패를 해도 NC는 5승을 더해야 5위에 오를 수 있다. KIA가 남은 경기에서 4승 4패 '반 타작'을 할 경우, NC는 9승 이상을 만들어야 한다.

놀린이 '9월 에이스'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이끌었다.

1회 시작과 함께 첫 타자 김현준에게 중전안타를 맞은 놀린이 김지찬을 상대로 탈삼진을 뽑아냈다. 하지만 피렐라의 타구가 놀린 맞고 튀면서 내야 안타가 됐다.

다행히 큰 이상 없이 투구를 이어간 놀린은 오재일과 강민호를 외야 플라이로 돌려세우고 1회를 끝냈다.

2회는 탈삼진 하나를 더한 삼자범퇴. 3회에는 1사에서 김현준과 김지찬에게 연속 안타는 맞았지만 피렐라를 상대로 유격수 앞으로 향하는 병살타를 유도했다.

4회에도 연속 안타와 몸에 맞는 볼도 기록했지만, 구자욱을 상대로 다시 병살타를 만들면서 급한 불을 껐다.

5회에도 안타와 볼넷은 있었지만 탈삼진 2개를 더하며 실점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6·7회는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놀린이 7이닝 7피안타 2볼넷 탈삼진 무실점으로 등판을 마무리했다. 놀린의 9월 5경기 평균자책점은 1.34가 됐다.

타석에서는 박동원이 시즌 17호포로 포문을 열었고, 나성범이 모처럼 3안타 경기를 펼치면서 승리를 도왔다.

박동원이 5회초 홈런으로 '0의 균형'을 깼다.

선두타자로 나선 박동원이 수아레즈의 직구를 좌측 담장 밖으로 넘겼다. 이어 박찬호가 좌전 안타로 출루한 뒤 류지혁의 희생번트로 2루까지 향했다. 이창진이 2루수 플라이로 물러났지만, 나성범이 우익수 키 넘는 2루타로 박찬호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우규민으로 투수가 바뀐 7회 KIA가 다시 공세에 나섰다.

박찬호가 유격수, 좌익수, 중견수 사이로 공을 떨구고 1루를 밟았다. 류지혁의 희생번트로 1사 2루, 이창진이 중전 적시타를 기록하면서 3-0을 만들었다. 다시 투수가 이상민으로 교체됐고 나성범이 강한 타구를 2루수 김지찬 앞으로 보냈다. 글러브 맞은 공이 뒤로 흐르면서 내야안타가 됐다. 소크라테스의 땅볼로 2사 1·3루, 폭투가 나오면서 이창진이 홈에 들어왔다.

4점의 리드에서 아슬아슬한 8·9회가 전개됐다.

전날 1.1이닝 3K 퍼펙트 피칭을 선보인 좌완 이준영이 1사에서 피렐라에게 솔로포를 내줬다. 오재일의 좌중간 안타가 이어지자 장현식이 출격해 병살타로 추가 실점 위기를 막았다.

하지만 9회말 정해영이 흔들렸다.

전날 NC를 상대로 30번째 세이브를 기록했던 정해영이지만 첫 타자 구자욱에게 2루타를 내줬다. 강한울의 직선타와 김영웅의 포수 파울 플라이로 투 아웃은 채웠지만 정해영이 이재현에게 우측 펜스 때리는 1타점 2루타를 맞았다. 이어 김현준의 우전 안타로 4-3이 됐다.

정해영은 김상수를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어렵게 승리를 지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의 경기, 6회 말 마운드에 오른 KIA 선발투수 놀린이 무실점 호투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벤투호, 내일 카메룬과 평가전…이강인 출전할까

유럽파 선수들 포함한 멤버로
카타르 월드컵 최종 모의고사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출전을 앞둔 벤투호가 완전체로 최종 모의고사를 치른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27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카메룬과 평가전에 나선다.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 황의조(올림피아코스), 김민재(나폴리) 등 유럽파 선수를 포함한 최정예 멤버로 손발을 맞추는 건 월드컵 개막 전 이번이 마지막이다.

대표팀은 11월 출정식을 겸한 평가전을 치르고 카타르로 출국할 예정이지만, 이때는 유럽파를 소집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카메룬전이 최종 멤버를 꾸려야 하는 벤투 감독과 그 안에 들어야 하는 선수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앞서 한국은 23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코스타리카와 만나 힘겹게 2-2로 비겼다.

벤투호의 핵심 공격수인 손흥민과 황희찬은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해 무승부를 견인했다.

다만 수비 불안은 여전히 대표팀의 발목을 잡았다.

'괴물 수비수' 김민재의 복귀에도 수비 밸런스가 맞지 않는 장면이 종종 나왔고, 좌우 측면에서 안정감이 떨어졌다.

아직 붙박이로 세울 오른쪽 풀백 옵션을 결정하지 못한 벤투 감독은 카메룬전에서도 최고의 수비진 조합을 찾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회를 얻은 윤종규(서울)가 수비적인 측면에서 물음표를 남긴 가운데, 김태환(울산), 김문환(전북)이 경쟁을 이어간다.

벤투 감독의 전술적인 실험도 계속된다.

이번 9월 A매치에서 "다른 방식의 플레이를 시도하겠다"고 했던 벤투 감독은 코스타리카전에서 손흥민과 황의조를 투톱으로 세우고 황희찬을 왼쪽 측면에 배치하는 등 포메이션에 변화를 줬다.

카메룬을 상대로는 또 다른 전술을 꺼낼 전망인데, 이강인(마요르카)이 '새로운 엔진' 역할을 맡게 될지가 관심을 끈다.

아프리카 전통의 강호로 불리는 카메룬은 FIFA 랭킹 38위로 한국(28위)보다 낮고, 역대 상대 전적에선 한국이 2승 2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 카메룬은 공격수 에릭 막심 추포모팅(바이에른 뮌헨)과 미드필더 잠보 앙귀사(나폴리), 수비수인 미카엘 은가두은가쥐(헨트) 등이 빠진 1.5군의 팀을 꾸려 방한했다.

일부 주전 선수들의 공백 탓인지 23일 우즈베키스탄(77위)과 평가전에선 0-2로 패하기도 했다.

상대의 전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한국은 마지막 스파링에서 벤투 감독이 입버릇처럼 말해온 '우리의 스타일'을 재정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연합뉴스

11개월의 기다림…김수지, KLPGA 시즌 첫 우승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김수지(26)가 미루고 미뤘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시즌 첫 우승을 거뒀다.

김수지는 25일 충북 청주시 세레니티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투어 OK 금융그룹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총상금 8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3개를 잡아내며 2언더파 70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우승했다.

작년 10월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 제패 이후 11개월 만에 따낸 개인 통산 세 번째 우승이다.

지난해 2승을 거두며 혜성처럼 등장한 김수지는 이번 시즌 들어 이 대회 전까지 평균타수 4위, 상금랭킹 5위, 대상 포인트 4위가 말해주듯 최상위권 경기력을 뽐냈지만, 우승이 없어 애를 태웠다.

김수지는 특히 지난 4일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에서 연장전 끝에 우승을 황정미(23)에게 내준 아픔도 씻었다.

마침내 시즌 첫 우승을 거둔 김수지는 우승 상금 1억4400만 원을 받아 상금랭킹 4위(6억5270만 원)로 올라섰다.

'톱10 전문' 유해란(21)은 4타를 줄이며 3위(9언더파 207타)를 차지해 이번 시즌에 14번째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유해란은 대상 포인트 레이스에서 박민지와 격차를 더 벌리며 1위를 지켰다.

디펜딩 챔피언 김효주(27)는 담에 걸려 목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공동 11위(6언더파 210타)로 대회를 마쳤다. 김효주는 이날 버디 3개와 보기 3개를 적어냈다.

시즌 5승째에 도전했던 박민지(24)는 2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23위(3언더파 213타)에 올랐다.

/연합뉴스

김수지가 25일 충북 청주 세레니티C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OK금융그룹 박세리 INVITATIONAL' 최종라운드에서 우승 후 트로피에 입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K리그2 최다승·최다승점 도전

오늘 안산과 41라운드 홈경기

'챔피언' 광주FC가 K리그2 새 역사에 도전한다.

한 시즌 만에 K리그1 승격을 확정한 광주가 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안산 그리너스를 상대로 K리그2 41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23승 9무 4패·승점 78)는 지난 21일 4경기를 남겨두고 '조기 우승'을 이뤘다.

이날 2위 FC안양이 대전하나시티즌에 0-1 패를 기록(승점 63)하면서 잔여 경기 성적에 상관없이 광주의 우승이 확정됐다.

지난 2019년 3경기를 남겨두고 우승 샴페인을 터트렸던 광주는 이번에는 '4경기'를 남기면서 K리그2 최단 기간 우승 기록을 새로 작성했다.

광주는 또 올 시즌 K리그2 홈 최다연승(10연승), 구단 최다승·최다승점(기존 20승 73점) 기록도 만들었다.

압도적인 우승을 이뤘지만, 광주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광주는 남은 4경기에서 K리그 역대 최다승과 최다승점 고지를 노린다.

K리그2 최다승·최다승점 기록은 2017년 경남FC가 작성한 24승·79점이다.

광주가 이번 안산전에서 승리를 거두면 최다승 동률을 이루면서, 최다승점 기록을 81점으로 새로 작성하게 된다.

체력·분위기 모두 좋다.

광주는 지난 39라운드 안양전 2-1 승리 이후, 40라운드 휴식기 팀이 되면서 꿀맛 같은 휴식을 취했다.

체력을 채운 광주는 우승이라는 기쁨까지 누리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기록 경신에 나서게 된다.

브라질 출신 공격수 산드로가 기록 행진 전면에 선다.

광주의 막판 우승 질주에는 산드로가 있었다. 38라운드 전남과의 원정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주간 MVP에 올랐던 산드로는 안양과의 '결승전'에서는 '결승골'을 작성하면서 팀의 2-1 승리를 견인했다.

이 승리와 함께 광주는 느긋하게 안양의 경기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승 축배를 들 수 있었다.

뒤늦게 팀에 합류했지만 5골을 만든 산드로는 득점뿐 아니라 동료를 활용한 연계플레이, 날카로운 키패스 등을 선보이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이순민과 정호연이 공수 연결고리 고리 역할을 하면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고, 안영규-박한빈-아론 등 수비진은 탄탄한 대인방어로 상대 공격을 묶으며 최소 실점(36경기 30실점)을 이끌고 있다.

안산은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수비가 강점. 최건주를 비롯해 김경준, 두아르테, 티아고 등 한 방을 갖춘 선수들을 주의해야 한다.

광주는 역대 전적에서 5승 3무 3패를 기록하면서 안산에 강했다. 올 시즌에도 2승 1무로 안산에 지지 않았다.

또 안산은 전남에 1-7 대패를 당하는 등 최근 3경기 연속 무승(2무 1패)을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광주 이정효 감독은 "우승이 확정됐다고 해서 남은 시즌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 우리는 더 강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수단 역시 역대 최고 기록 경신이라는 동기부여가 있어서 의지가 강하다.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